

새 남편

7/7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사 54:5

5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고후 11:2

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롬 4:15

15 왜냐하면 율법이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법도 없습니다.

롬 5:20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갈 2:20-21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 3:24

24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어린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의 본래 위치는 아내의 위치였다. 이사야서 54 장 5 절에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 따르면 사람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였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는 그분께 의존해야 하며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위치였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는 다른 위치를 취했다. 그것은 그가 독단적으로 취한 옛사람이라는 위치이다. 타락한 사람은 남편의 위치를 취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아내였는데, 타락한 사람은 남편이 되었다. 남편의 위치를 취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머리 곧 남편이 되었다. ... 남자는 여자를 타락한 사람은 다 자신을 남편으로 생각한다. 많은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 “왜 제가 남편 아래 있어야 하나요? 남편이 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가 머리가 되어야 하나요? 제가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은 강하고 추한 남편이 되었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191-19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타락한 사람이 남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법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옛사람의 법, 즉 남편의 법이 되었다(롬 7:2).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옛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옛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율법을 어김으로써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다면 여러분은 옳은 것이다. 율법은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상이다. 로마서 3 장 20 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 율법이 없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이 지은 죄를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한다. 더욱이 4 장 15 절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법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율법이 위법을 막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절은 율법이 위법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또한 5 장 20 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죄를 줄이고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이며 사상이다.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죄가 허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기라는 것임을 보여 준다.

여러분은 “저는 율법을 범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율법을 범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없다.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학교의 학생들도 동급생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도 십계명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범했고, 또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고 들어온 것이다.

로마서 7 장 7 절에 따르면, 우리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약하여 말하면, 율법이 하는 일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범죄가 많아질 때 율법은 그것을 죄로 드러낸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한다. 거듭난 새사람의 위치는 참된 아내의 위치이다.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위치로 회복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192-1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7/8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7:2

2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롬 6:6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렘 31:32

32 그것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호 2:16

16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그날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더 이상 ‘바알리’라 하지 않으리라.

아 6:1, 3

1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가 버렸나요? 여인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이여. 그대가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돌아서 버렸나요? 우리 함께 그를 찾아봐요.”
3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고전 11:3

3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계 19:7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 장 2 절부터 6 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새 남편이심을 계시한다.

거듭난 이들로 믿는 이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남편이시며, 그리스도의 아내의 일부이다. ...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신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련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남편을 잃은 여자인 과부와 같기 때문이다. ‘과부’라는 말은 불쌍함을 내포하고 있다. 과부는 자신의 모든 누림을 빼앗기고 강탈당했다. 과부는 인생의 누림의 모든 것을 잃었다. 분명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남편이시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7 장 2 절과 3 절의 첫 번째 남편은 육체나 율법이 아니라 6 장 6 절의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사람이다. 옛사람인 우리는 남편이었고, 새사람인 우리는 아내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194 쪽)

로마서 7 장 2 절부터 4 절 상반절까지는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이라고 말한다. 이 절들은 두 남편을 보여 준다. 첫 번째 남편(옛 남편)은 육체나 율법이 아니라 6 장 6 절에 언급된 옛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7 장 2 절부터 4 절까지에 언급된 두 번째 남편(새 남편)은 그리스도이다.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롬 6:6)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곧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인 새 남편에게 연결된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서 두 가지 신분이 있다. 로마서 7 장 4 절의 첫 번째 ‘여러분’은 타락한 옛사람이라는 우리의 옛 신분을 가리킨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내라는 본래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남편과 머리로서 독단적인 위치를 취했다. 로마서 7 장 4 절의 두 번째 ‘여러분’은 우리의 거듭난 새사람이라는 우리의 새 신분을 가리킨다. 새사람은 본래의 합당한 위치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참된 아내(사 54:5, 고전 11:3)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옛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에게서 합당한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만 있다. 합당한 신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더 이상 옛사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즉,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라는 합당한 위치를 떠나 남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아내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고자 하셨으며, 또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었다(롬 7:5, 3:20, 5:20). 따라서 바울은 율법을 ‘남편의 법’(7:2)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옛 남편인 옛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침례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었는데, 이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다. 율법은 옛 남편인 옛사람을 위한 것이자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게 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4-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9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7:3-4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4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3:27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엡 5:23, 32

23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골 3:4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남편,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7 장 4 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연결은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고린도후서 11 장 2 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그가 믿는 이들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약혼시켰다고 말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5-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엡 5:23)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종결하고 모든 것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분 자신께로 다시 이끄시어 그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도록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살거나, 스스로 행동하거나, 스스로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끝나야 하고, 우리의 머리는 반드시 완전히 덮여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다. 옛사람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인격이시다.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한다(골 3: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머리이시며, 인격이시고, 생명이시다. 우리는 끝났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은혜 아래 있고, 이제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갈 2:19).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어떤 사람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는 또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또 다른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그가 믿고 침례 받기 전에는 오직 한 인격과만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그가 오직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옛사람만을 자신의 인격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가 삼일 하나님을 믿고 침례 받으면, 그는 다른 인격 곧 우리의 구속자, 화목하게 하시는 분, 생명-구원자이신 신성한 인격과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인 우리는 죽었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난 새사람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옛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 이것은 큰 변화이다.

거듭나고 침례 받은 많은 믿는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옛사람에 의해 산다. 그가 믿고 침례 받은 후에는 그의 속에 있는 무언가가 옛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그를 규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내적인 규제는 한 면에서 그의 옛 생활 방식을 죽이고, 또 다른 면에서 그의 거듭난 새사람을 살게 한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한다.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그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그가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을 가리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6-7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10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7:4-5

4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 15:5, 8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갈 5:22-25

22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23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로마서 7 장 4 절은 아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옛 남편이었을 때에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죽음이었다. 우리가 낳을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다. 우리가 산출한 것은 모두 죽음의 열매였고, 죽음에 이르는 열매였다.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내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 전에는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행동이 죽음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죽음과 하나님 사이의 뚜렷한 대조,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것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본다.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과 옛 남편이었을 때에 율법 아래 얽매어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행동이 죽음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였다. 새사람으로서 그리고 새 남편과 결혼한 아내로서,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산출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행동은 반드시 살아 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넘쳐흐르시게 하여 하나님을 산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열매로 갖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7-7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7 장 4 절에서 바울은 장례식과 결혼식을 함께 묶는다. 우리는 한 면으로는 장사되었고, 다른 면으로는 결혼하여 다른 분께 가게 되었다. 우리가 죽은 것은 다른 분께 가기 위한 것이었다. 로마서 7 장 4 절에서는 우리가 결혼하여 다른 분께 가기 위해 죽었고, 갈라디아서 2 장 19 절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 죽었다. 우리에게 두 신분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옛 신분에 따르면 우리는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새 신분에 따라 다른 분께 가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새 신분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7 장 5 절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말해 준다. ...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7:5), 우리는 옛 남편이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6 절), 우리는 아내가 되었다.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며 우리가 얽매어 있던 것에 대해 죽었다.

이제 옛 남편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을 것이다. 옛 남편은 우리의 옛사람이다. 아내는

우리의 거듭난 새사람이다. 옛사람인 우리는 죽었고, 새사람인 우리는 살아 있다. 우리는 옛 남편으로서 죽었지만, 이제 아내로서 살아 있다. 앞으로 보겠지만, 아내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는 두 가지 일을 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197-198 쪽)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롬 7:4).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사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로마서 7 장 4 절 하반절은 “...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는 이유는 단지 율법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있지만,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이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60 권, 고령 훈련 기록(2), 56 장, 368-36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11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7:6-7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갈 2:19-20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마 5:48

48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갈 3:2-3, 5

2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5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로마서 7 장 6 절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거듭난 새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율법에서 벗어났음(롬 7:2-3, 갈 2:19)을 밝혀 준다. 율법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인 옛 남편에게 주어졌고, 옛사람인 옛 남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아내인 새사람은 옛사람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아내이자 새사람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8-7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율법에는 적어도 세 방면의 기능이 있다.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정의한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을 묘사하는 초상화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준다. ... 레위기 19 장 2 절은 다음과 같은 계명을 제시한다. “나 곧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계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마 5:48)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원칙은 동일하다. 율법은 하나님에 관한 그림을 제시한다. 그분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다. 그분은 사랑과 빛의 하나님이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기능은 로마서 7 장에 철저히 제시되어 있다. 로마서 7 장 7 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 죄가 잠복해 있었음을 암시한다. 로마서 7 장 8 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죄는 율법을 칼로 사용하여 바울을 죽였다. 로마서 7 장 11 절에서 바울은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그를 죽였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체험을 통해 바울은 계명이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하시어 바울을 드러내셨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드러난 후에 우리는 굴복 되어야 한다. 일단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굴복되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

마태복음 19 장에서 부자 청년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좌절했지만 굴복 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 만일 그가 굴복되어 “주 예수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당신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주님은 그에게 “그대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다만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그 요구를 이루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요구를 이루기 원하신다.

빌립보서 2 장 12 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라고 말한다. 우리는 바울의 말에 굴복되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운행에 의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우리가 율법에 굴복되어 우리 자신은 주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거룩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할 수 없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다만 네 자신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너를 위하여 이 요구들을 이루게 하여라. 나는 너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분을 산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기본 원칙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4, 793-79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4

7/12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6:4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7:6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고후 3:6-8, 15-18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 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15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7 장 6 절은 아내로서 우리가 또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로마서 6 장 4 절에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생명의 새로움이 있고, 7 장 6 절에는 우리의 봉사를 위한 영의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명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시됨으로 산출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함을 위한 것이다. 영의 새로움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산출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의 새로움과 생명의 새로움은 둘 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로 온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더 나아가 생명의 새로움과 영의 새로움은 둘 다 그 영과 관련된다. 생명의 새로움은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 하) 이신,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된다. '영의 새로움'이라는 표현에서 영은 그 영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거듭난 영(딤후 4:22)을 가리킨다.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롭고, 우리 영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새롭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움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계속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새로움만 있다. 낡음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하지 않는다. 낡음은 옛 율법, 옛 규정, 옛 문자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겨서는 안 된다. 로마서 7 장 6 절에서 바울이 쓴 '문자'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기록된 율법 조항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많은 규례와 요구와 규정이 있다. 만일 우리가 영이 없이 이러한 규례와 요구와 규정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죽은 문자의 낡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옛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새사람인 우리가 옛사람의 율법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0, 79-80 쪽)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회 집회에 올 때 여러분의 기억을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라. 여러분의 영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것을 형제자매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것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내 기억 속에 지식을 많이 쌓아 놓고 기억해 둔 것을 재료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면, 그 메시지는 낡은 것이 될 것이고 죽은 지식의 낡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내 기억을 잊어버리고 내 영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한다면, 새로운 것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1969 년에 이리(Erie)에서 가진 특별 집회 때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 그 특별 집회 중 한 집회에서 나는 말씀을 전하려고 일어섰지만 전할 메시지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 나는 믿음으로 서서 내 영을 사용했다. 즉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모두 그것이 새롭고 신선하고 강력하고 살아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다. 그날이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제시된 첫날이었다.

우리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넘쳐흐르시어 하나님 자신께 드릴 우리의 열매가 되신다. 또한 우리는 문자의 낡음이나 율법의 낡음 안에서가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며,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202-2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7/13 주일

아침의 누림

엡 5:20-27

- 20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22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23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24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